

- 본문 :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 제목 : “하늘 법정에서 내리는 심판”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각상의 부제가 “지옥문 앞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제가 별로 타당하지 않은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문 앞에까지 갔다면 이미 끝장입니다. 사실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게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옥문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문 앞에 다가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종착역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머리를 숙이고, 손을 턱에 괴고,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런 곳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무엇인지 당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11절)
 2. 11절에서 “크고 흰 보좌”(11a)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11b)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3. 본문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12~13절). 당신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13b~14)고 했는데, 우리는 불못의 형편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옥 불못을 어떤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 * 마태복음 10:28
* 마태복음 25:30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제일 강력하게 막으시는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지옥 가는 길목에 세우시고, 이 길로 오라고 울부짖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딤후2:4)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소중한 일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생명축제를 맞이하는 한 주간, 당신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기로 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기도제목

1.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야 함을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만 “전적의탁하는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2.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도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을 “주여!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3. 송원교회가 새생명축제를 맞이하는 한 주간, 태신자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심판에 대한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